

봉축 영상메세지

(합장)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며, 한 뿌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픔을 나누면 가벼워지고 행복을 나누면 두 배가 됩니다. 이웃의 눈물을 내 얼굴처럼 닦아야 하고, 이웃의 일로 내가 크게 웃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생명의 가치는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서로가 소통하기 쉬운 나라, 아이들 모두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키우는 지혜와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모아 여객선 사고로 길을 잃은 생명들이 어둠과 두려움에서 어서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커다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용기와 기운을 내어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햇볕이 원만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합장)

KBS 영상메세지

세월호 생명들이 밝은 빛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커다란 아픔에 빠진 분들이
용기를 내어 슬픔을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공업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지혜와 자비로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중앙일보 <나를 흔든 시 한줄> 메세지

만해스님은 선사이며,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불자는 물론 지식인에게 구도에 대한 열정을 쉼없이 심어주신 스승이기도 합니다. 불교 개혁과 민족을 위한 실천을 독려하는 삶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매년 만해축전이 열리는 8월이면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을 찾아 스님의 원력과 덕화 앞에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걸어가신 구도의 길, 불교개혁과 민족통일, 인류평화의 길 위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1944년 6월 성북동 심우장에서 고단한 육신을 벗어놓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떠나셨지만, 하지만 스님의 뜨거운 구도애와 인류애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표이자 동력으로 살아 있습니다.